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4호

권두시 | 휘파람 새 | 도경희 **경남간호 초대갤러리** | 수채화 | 정호경 **경남간호인** |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 대한적십자사 | 윤미자·나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 채연미 **여행기** | 간호부 문화축제가 만들어준 또 하나의 추억 | 김지희 **회원 작품 맛보기** | 허경이 이숙련 박형숙 임승춘 **현장의 소리** | 김령호 남예슬 박용석 안지영 황주영 **제27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2018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경남간호사회 동향**



휘파람 새

소리가 와서 머무는 범종이 되려는가
이 수술 끝나면
월남전 파병용사인 나는
목소리를 잃는다

수술실 앞에서
그늘을 한 자락 매달고 있는
안사람 손을 잡아본다
잎새들 다 떨어져 혈빈한
옹이 많은 나무

자네를 만난 것이
내 생애 제일 큰 복이었네
온 정신을 모아
툼병툼병
마지막 말을 던진다

내 그리운 뜨락에
휘파람새로 와서 울 듯
홀로 핀 소리 꽃 한 송이
막막하고 두려운 순례를 가고 있다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4호



도경희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2002년 계간《시의 나라》등단했다. 시집으로 『노래의 빛』 『외나무다리 저편』 『말을 걸었다』 등이 있으며 진주문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회원이다.



■표지이야기
2018년도 초청강연회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4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박형숙
 발행일/2018년 12월 31일
 편집장/이종임
 편집위원/김은희, 박옥명, 박춘희, 이숙희, 황진희, 김영란(사진)
 주소/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휘파람 새 | 도경희

4 **권두언** | 박형숙 | 경남간호사회 회장

6 **격려사** | 우선혜 | 증경회장

8 **경남간호 초대갤러리** | 수채화 | 정호경

| 경남간호人 |

10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총무팀장 윤미자



16 **나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채연미



여행기

20 **간호부 문화축제가 만들어준 또 하나의 추억**
 김지희



회원작품 맛보기

- 24 사진 | 봄 | 허경이
- 25 시 | 인연 | 이숙련
- 26 시 | 회복기 환자 | 박형숙
- 28 수필 |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다녀와서 | 임승춘

현장의 소리

- 30 한여름날의 이야기 | 김령효
- 33 어느 3년차 간호사의 Cheer Up | 남예슬
- 36 겨울 가고 봄이 오듯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 박용석
- 38 4년차 간호사의 첫 경험 | 안지영
- 42 '꽃길' 아닌 '불꽃 길' | 황주영

46 **제27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54 2018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경남간호사회 동향

- 58 2018년 분회 주요소식
- 63 2018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 창녕군간호사회
 하동군간호사회 · 고성군간호사회 ·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 사천시간호사회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 합천군간호사회 · 밀양시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72 편집자 레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간호현장의 전문성을 향해



박형숙
경남간호사회 회장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의
충분하고도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및 관련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우리 간호사야말로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핵심 의료인임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1년간 여섯 번의 이사회와 15개 분회의 총회와 어르신 잔치 등 각종행사 참석, 그리고 16개 간호학과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석과 축사, 그리고 지난 5월 1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개소한 이래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유휴간호사 교육과 실습, 병원취업 연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간호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4주 동안 10차례에 걸쳐 거제, 진주, 창원, 마산 및 김해 등지에서 조직문화개선 및 이직방지교육 등을 실시하느라 몸과 마음은 무척 바빴으나 각 병원마다 30여 명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 간호의 당면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같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본회의 사업내용은 회원역량개발사업을 5개 분회로 확충지원, 5월의 학술발표회, 6월 경상남도남자간호사회 발족식 참석, 7월은 16개 간호학과장들과 병원의 간호부서장들 간의 질 향상 세미나 개최, 2박 3일간의 양산 스페이스 나무에서 개최한 보건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 8월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9월의 요양병원 간호부 work-shop, 10월은 간호사 Cheer Up을 개최하여 5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들 50여 명과 통영의 세자트라숲을 거닐고 이어서 430년 전의 일본군을 섬멸한 이순신장군의 12척 배 대신 요트를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던 젊은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며, 12월 들어 창원의 풀만앰베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경남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등의 내빈, 중경 회장님, 임원과 분회장, 그리고 회원 160여 명이 참석하여 김이곤 유클래식 대표의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면허 소지 보건의료 유관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및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본회가 주관해 온 기존의 사업들을 전문직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원 및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소통하는 간호를 실천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염원이 담긴 단독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열다섯 개 분회 소속의 국회 의원님을 만나 뵙고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는 일 등이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피지, 사모아, 통가 등의 나라들도 일찍부터 간호법이 있는데, 국민소득 3만 불을 상회하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단독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만났던 관련 인사들께 간호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질실함을 피력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건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이며 노인들 가운데 독거노인이 많고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병원과 시설중심의 의료체계로부터 지역사회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한 지역주도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바뀔에 따른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의 충분하고도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및 관련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우리 간호사야말로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핵심 의료인임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 경상남도 15개 분회가 있는 시와 군의 이름답고 정겨운 풍광, 그곳에 살고 있는 순박한 주민들과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의 고른 숨결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생생하고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묵묵히 간호현장의 전문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5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경남간호사회의 제24호 『경남간호』 발간을 위하여 힘써주신 이종임 홍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훌륭한 원고와 자료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읽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크다



우 선 혜
증경회장

‘읽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읽는 것은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언어 구사력과 생각 능력을 높여줍니다.

‘독서 경험은 망루의 높이와 같다’고 하지요, 망루가 높을수록 멀리 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깊은 사고를 하려면 어려운 책을 읽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1999년 『경남간호』 창간 시 회장이었던 저는 홍보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책이 병동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집어들 수 있게 표지가 예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멋지고 알찬 내용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로 바깥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젊은 세대에 맞추느라 중단되었던 『경남소식지』가 『경남간호』로 재발간되어 격려사를 쓰게 되어 누구보다 기쁜 마음입니다.

21세기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며 수명까지 길어져 전통적인 모델이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는 시대에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인류 전체가 겪은 지난 경험까지 미래의 안내자가 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지능 기계와 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 정확한 감정조절능력을 가진 알고리즘, 신속하게 조절되는 인공기후 변동, 어쩌면 10년마다 직업을 바꿔가며 살아야 하는 사회 환경, 이러한 생명기술과 정보기술 속에서 우리도 변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하여 글로벌 캠페인으로 ‘Nursing Now 한국위원회’ 출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그리고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

“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간호사 역할 확대와 인식개선 및 국가적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하여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님, 임원들의 노고와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13,000여 명의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 시행 등으로 간호사 확보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Community care’ 즉 주민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방문간호서비스로 간호사의 많은 충원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노인의 절반 이상(57.6%)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조사 결과와도 부합되는 좋은 정책으로 빠른 시행을 고대합니다.

전문 간호사 제도도 활성화의 길이 열려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간호사 역할 확대와 인식개선 및 국가적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하여 우리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님, 임원들의 노고와 각자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13,000여 명의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몽생미셸 / 69cmx45cm

●작가노트

땅 위로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은 구름과 상호작용하여 하늘을 거대한 화폭으로 만든다.

삶은 바람이다.

바람이 구름을 통하여 하늘에 흔적을 남기듯 인생은 예술을 통하여 자취를 남긴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 56cmx38cm



이탈리아 나폴리거리 / 32cmx24cm



정호경 대한민국의미대전, 경남미술대전, 개천미술대상전 심사위원 역임 | 진주미협부지부장, 경남산가람미술협회, group 道, 축석회 회장 역임 | 경상남도미술대전 대상·특선·초대작가상, 대한민국의미대전 입선, 전국교직원미술작품교류전 우수상, 크레아트 일본전 오가키시장상, 진주미술인상 | 현. 한국미술협회, 경남산가람미술협회, Creart, group 道, 七四會, 축석회, 진주야회사생회 회원, 'Art Gallery 연' 대표.

28년간 근무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좋은 성과를 낼 때면 보람을 느꼈고, 간호사로 입사하여 지금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간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함, 꼼꼼함 등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적십자사의 행정업무는 간호계의 보기 드문 분야이지만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



| 경남간호인 |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총무팀장 윤미자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 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외 현장에서 인간의 고통경감과 생명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널리 구제하고 사랑하라’,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제국 적십자로 발족된 이래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대전환의 순간을 함께 해오고 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독립군의 곁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청년들의 곁에서, 재난과 사고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수많은 이들의 곁에서 함께 희망을 찾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오고 있다.

* * *

윤미자 팀장은 1991년 적십자혈액원 입사 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로 전보되면서 지역보건사업, 청소년 사업,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자원조성 활동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쳐 지금은 경남적십자사의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는 총무팀장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인 경남하나센터장을 겸임하면서 간호사로서의 또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집무실에서



봉사회 홍보부장을 대상으로 적십자 홍보활동 교육



청소년 대상 성교육

대한적십자사(혈액원) 지원 동기

윤미자 팀장은 대학시절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인 RCY에 가입하면서부터 적십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RCY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막연하게 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입사 후 RCY 활동을 하면서 배운 회의 진행법, 공문서 작성법, 레크리에이션 등이 업무에 많은 도움

이 되었고, 혈액원에서 채혈 업무를 하던 중 경남 지사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인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28년간 근무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좋은 성과를 낼 때면 매우 보람을 느꼈고, 간호사로 입사하여 지금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간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함, 꼼꼼함 등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두각을 나타내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한다. 따라서 '적십자사의 행정업무는 간호계의 보기 드문 분야이지만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고 한다.

적십자사는 모든 국민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을 당부하고자 1년에 한번 적십자 회비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한명이 낸 적십자 회비 1만원이면 차가운 방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20장을 전달할 수 있고, 3명이 모이면 끼니를 걱정하는 저소득 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할 수 있으며, 5명이 모이면 태풍, 수해, 화재 등 갑작스러운 재난에 고통을 받는 이재민에게 재난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다.



구몬 아동도서 기증식



창덕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청류 멘토링 협약식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중점 사업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분야는 일반회계, 혈액회계, 병원회계가 있다. 윤미자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일반회계 분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재난구호 활동이다. 적십자사는 평시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재난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평시구호를 통하여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위기를 맞이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적십자 조직은 초·중·고·대학 등 각 교급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친선·보건·봉사·국제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해외봉사

활동 등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라면 적십자사는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적십자사는 모든 국민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을 당부하고자 1년에 한 번 적십자 회비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한 명이 낸 적십자 회비 1만 원이면 차가운 방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20장을 전달할 수 있고, 3명이 모이면 끼니를 걱정하는 저소득 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할 수 있으며, 5명이 모이면 태풍, 수해, 화재 등 갑작스러운 재난에 고통을 받는 이재민에게 재난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윤미자 팀장은 '경계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확박해져 가고 있어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전한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작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병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사고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간호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추석 합동 차례



보건강사회와 에이즈 예방 캠페인



일본 후쿠오카 RCY(청소년적십자사) 단원들과의 교류활동

대한적십자사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

대한적십자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적십자사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소통했는지 여부가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적십자사 봉사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도주의 정신, 국제기구인 만큼 글로벌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언어(토익 700점 이상), 정부 기관 및 적십자 표창, RCY 활동 경력 3년 이상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수상안전법강사 자격증,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자격증, 평생교육사(3급 이상)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우대 특례 가산점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후배간호사들은 틈틈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계획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호업무는 중단되었지만 간호학을 전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간호라는 학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고 적십자사의 모든 업무에 간호가 접목되면 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는 “적십자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노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은빛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한다.



라오스 샌던초등학교 개교식에서 감사패 수상 후 기념촬영

후배간호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작지만 큰일을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병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사고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간호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

며, 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므로 끊임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 *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에서 낮고 어두운 곳을 지키는 사람들! 윤미자 팀장의 28년이란 흔적들은 오랜 고목의 나이테처럼,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처럼, 멀리 미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등불이 되리라 생각된다.

취재/이숙희 위원
사진/김영란 위원

환자들을 보면서 가슴에 새긴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그토록 바라던 이들의 내일이다.”
 그 내일인 오늘을, 나의 보살핌과 간호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가을비 내리는 소리에 마음을 담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경남간호인|

그들은 꼭 잡은 두 손으로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나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채연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가정전문간호사 채연미라고 합니다.”
 바깥 외출도 자제했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바람과 바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적당히 선
 선해진 계절에 바람을 타고 저에게 칭찬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칭찬을 전해주신 분은 경남간호사회 기획위원회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간
 호사회 칭찬 릴레이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마음 가득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칭찬에 익숙지 않아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나의 온몸을 감싸 안아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 * *

운명은 피할 수 있지만, 숙명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의 큰 바람
 으로 나를 간호직으로 인도하였으며, 학생 시절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할 때 나에
 게 있어서 간호사는 운명이 아닌 숙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려병원 시절 입사하여 현재까지 24년
 이라는 세월을 이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2년차 때 간호부 추천으로 가정간호를 공
 부하게 되었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
 많은 가정전문간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제가 가정간호 업무를 한 것 또한 나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2차 가정간호 시범사
 업 시작 시기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을 비롯하여 경남 일대를 가정 방문하
 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정 전문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안위를 위해 사명감
 을 가지고 지역사회 간호현장에 뿌리내림
 을 해왔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경력만
 22년째, 말기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각종 튜브를 삽입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
 하며 지내고 있는 환자 등등 많은 환자들은



봉사에 앞서 물품을 챙기면서



중간간부(책임) 리더십 교육에 참가

대부분 중증환자이며, 22년째 간호를 받고 있는 분부터 10년, 5년, 최근에 등록한 분들까지 이 환자들은 평생을 나의 간호를 받으며 지냅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아픈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철학이 생겼고 여기에는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는 보호자가 챙기지만 정작 본인 몸과 마음은 돌보지 않기에 그런 보호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면 알듯이 나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서로 위로하며, 챙기며 지금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꼭 잡은 두 손으로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나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서 봉사는 습관이며, 내 생활의 일부입니다. 더불어 함께 나눔이 좋아서 시작하였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마음 가득 사랑과 감동을 선물 받아 옵니다. 20여 년 동안 업무 외 시간에는 본원 사랑리 봉사팀 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무료진료 및 경남가정간호사회 일원으로

저에게 있어서 봉사는 습관이며, 내 생활의 일부입니다. 더불어 함께 나눔이 좋아서 시작하였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마음 가득 사랑과 감동을 선물 받아옵니다. 20여 년 동안 업무 외 시간에는 본원 사랑리 봉사팀 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봉사

매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밴 습관이고, 생활이기 때문이죠.

세월의 흐름에 쌓이는 것은 성숙함과 추억이라고 하지요. 저 또한 24년간 간호사로서 성숙해지고 병원에서의 추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또한, 간호사의 품격을 지키며 항상 노력하고 매사 언행에 선·후배들의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가슴에 새긴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그토록 바라던 이들의 내일이다", 그 내일인 오늘을, 나의 보살핌과 간호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가을비 내리는 소리에 마음을 담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간호부 문화축제가 만들어준 또 하나의 추억

김지희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41병동 간호사

간호부 문화축제를 위하여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만든 작품을 사진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정말 운 좋게 1등을 하였다. 어마어마한 상금도 받게 되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2017년 6월 더위가 시작될 때 즈음이었다. 우리 모두 긴장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간호사였지만 인자하신 수간호사 선생님과 친절하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점차 41병동의 일원이 되고 있었다.

무사히 100일을 맞이한 우리는 선생님들의 깜짝 축하파티에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추운 겨울 우리는 입사 6개월을 맞이하여 부서의 배려로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오프를 받아 일본 오사카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



신입간호사 100일 되던 날 선생님들의 깜짝 축하파티



첫째 날은 유명한 글리코상과 사진을 찍기 위해 도톤보리도 가고 햅파이브 관람차를 타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이치란 라멘을 저녁으로 먹고 다들 줄 서서 먹는 타코야키도 먹고 기대하던 일본 편의점에 가서 야식을 즐기면서 우리의 행복한 첫째 날을 마무리하였다.





둘째 날은 오사카성도 가고 유명한 우메다 스카이 빌딩에서 일본의 야경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며 더욱더 친해지고 병원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날은 숙소 근처를 구경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꼭 다시 일본에 같이 오자고 다짐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

바쁘고 정신없게 병원생활을 하던 중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바로 우리병원 간호사회에서 개최하는 입사 1년 된 신입간호사들을 위한 돌잔치의 일환인 '간호부 문화축제'라는 행사이다. 힘겹게 1년을 보낸 간호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축제의 자리이며, 올해 희로애락을 같이한 동기들과 함께 입사 1년을 자축하는 힐링시간을 갖고 드레스 코드에 맞춰 사진을 찍어 '사진콘테스트'로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병원 모든 직원분들의 심사도 받게 되고 수상팀의 상금도 어마어마하였다.

첫 직장의 첫 동기들과 사계절을 함께 보낸 만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추억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간호부 문화축제에 참가하여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었기에 우리는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또 한 번 부서의 배려로 오프를 다 같이 받아 드레스코드 'Green'에 맞춰 멋진 'Green' 풍경의 부산으로 당일 여행을 떠났다.



'간호부 문화축제'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Green' 풍경의 부산에서 찰칵!

우리는 다시 한번 돈독한 사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기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병원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간호부 문화축제'를 위하여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만든 작품을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정말 운 좋게 1등을 하였다. 어마어마한 상금도 받게 되었다.

●●●

우리가 그랬듯이 후배들도 '간호부 문화축제'를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며 추억과 새로운 다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년 남짓 병원에서 지내온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어준 동기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봄

●작가노트

사진은 나에게서 살아가는 힘. 붓 대신 카메라를 통해서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파인더를 통해 본 사물들에서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늘 느낀다. 나만의 빛을 찾으며 보낸 시간들에서 힘을 얻는다.



허경이 엠마우스요양병원 간호사, 진주시간호사회 회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시부 간사 역임 | 2003년 개천예술제 진주촬영대회 대상, 춘향미술대전 특선 2회, 경남사진대전 입선 7회, 기타 타 공모전 수상 수회, 2014년 한사협 경남도지회 사진문화상 수상, 2015년 한국예총 진주시회 진주예술인상 수상 | 중국교류전, 사진작가회원전, 기타 회원전 수회



이숙련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인연

천국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나 무슨 인연으로 한 송이 붉은 장미와 마주하고 있나?

지금 마주하는 이 장미는

억만 겁 우주의 시간과 질서를 넘어

현재 내게 와있다

인연이란

이렇게나 엄청나고 소중한 것

나에 닿아있는 무엇이든

더는 가슴 아프지 않고

우주 만물이 모두 행복하였으면 좋겠다.

—제38회 간호문학상 당선

●작가노트

학교를 오가는 길 담장에 핀 붉은 장미를 보고 문득 일어난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 지금 이 장미는 여기에서 나를 만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해 보았다.





박형숙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회복기 환자

파리하고 기운은 없으나
눈빛만큼은 영롱하게 빛나네
희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이 궁리 저 궁리
다시 살아난 새 생명에 감격하고

나 이제 굳게 맹세하노니
어여쁘게 생을 살리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결심은 어느 사이
분홍빛 새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온 몸과 영혼에 파고드네

새날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신은 더 없이 맑아지고
해맑은 꿈들이 영글어 가네
대지 위에 밝게 빛나는 태양
힘차게 흐르는 강물,
정녕 그 자태 아름답고 고와라

●작가노트

어느날 외과병동 실습지도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병원 1층 로비에서 IV폴대를 몰고 가는 50대 중년 남자를 보았습니다. 환의 바깥으로 드러난 손등과 목의 빗장뼈가 매우 앙상하게 보였으나 얼굴 표정만큼은 아주 부드럽고 희망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특히 눈빛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새로 살아난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의 눈빛이었겠지요. 병상에 투병 중인 모든 환자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A Patient in Restoration

Bluish, and pale face
But eyes glaring clear
Hopeful, expecting, and throbbing
Thinking of this and thinking of that
Giving thanks to a revitalizing body

Now with a firm oath
to live a beautiful life
For the sake of my beloved ones
Devoting myself to them
Unconsciously my resolution flows
into pinky flesh and fresh blood
Piercing my body and soul,

Yearning for the awaking of a new day
My spirit has become transparent
A bright dream is ripening
The sun is beating down stronger
The flowing river is more powerful
How beautiful and tender the appearance of all the things!

-7th Global Congress fo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6/2018)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다녀와서...

임승준 / 창원파티마병원

평소 걷기 싫어하던 내가 병원 마라톤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나의 생활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다. 병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에 취미생활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던 나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였다.

나를 알던 분들이 “마라톤 하세요?”, “뛰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등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 나는 멋쩍게 “잘 뛰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뛰어 보려고요”라고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다.

2년째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고 있지만 아직 낯설 때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다. 그렇지만 대회를 준비할 때 설레고 흥분되는 걸 보면 내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다.

이번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노을을 보며 사천 해안도로를 달리는 코스로 한여름에 개최된다. 그래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 후 동호회 회원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가장 공을 들여 준비하는 대회이다. 올해에도 회장단이 선발대로 출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합류했다. 그런데 오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대회 개최 여부가 걱정될 정도였다.



어쨌든 일찍부터 도착해 부침개도 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장대같이 오던 비가 그친 게 아닌가? 기분 좋게 대회장소에 도착했고 창원파티마병원 부스를 보는 순간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한팀 두팀 모여 개회식이 시작되고 폭죽이 터지며 출발을 알렸다. 회원들의 설레는 표정들을 보며 나도 기분이 좋았다.

얼마나 뛰었을까? 비는 그쳤지만 높은 습도가 나를 많이 힘들게 했고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몸도 아주 무거웠다. 하지만 이내 나타난 바다를 보는 순간 내 몸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쉽게 노을은 많이 볼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료들의 밝은 표정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어린아이들, 외국인, 어르신 등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들을 보며 새삼 여기에서 있는 내가 뿌듯하게 느껴졌다.

힘들게 뛰긴 했지만 기록이 15분 단축되어 너무 기뻐고 모두 무사히 완주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국밥을 맛있게 먹고 마무리 사진을 찍고 얼른 숙소로 향했다.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 세팅을 하고 고기파티 준비를 했다. 우리는 요리 베테랑인 임 선생님 덕분에 보기도 먹기도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선배들이 술선수범하여 움직이는 모습 또한 너무 좋았다.

내가 마라톤 동호회에 나가면서 좋았던 점은 여러 부서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부서라도 깊은 대화를 하기가 힘든데 이곳에서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숙소가 바닷가 옆이라 파도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의 얘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아무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든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찾기를 진행하고 이번 마라톤 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질 때는 아쉽기도 했지만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었다.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무언가를 시작할 때 걱정이 많은 편이다. 그런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요즘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한여름날의 이야기

김령효 / 창원파티마병원 간호사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침,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고 오늘도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한다. 인수인계를 받으며 오늘 할 일을 메모한다. 아니나 다를까 협진과 검사들로 인계 노트가 가득 채워졌다. 어제 신환자가 입원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정형외과 병동에도 적용이 되는 듯 어김없이 대퇴 골절 환자였는데, 수술 날짜가 미뤄졌다. 조절이 안 되는 혈당 때문이다. 당뇨가 있어 집에서 인슐린으로 혈당을 자가 조절해왔던 70대 할머니였는데, 지병이 오래되어 그런지 의료진에게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 입원 첫날, 새벽에 저혈당에 빠지고 낮에는 혈당이 300mg/dl까지 올라 내분비내과에서 인슐린 용량이 조절되었으나 본인만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지 환자는 한사코 주사 맞기를 거부했다.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용량을 놓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를 놓지 못하도록 성한 팔다리를 휘둘렀다. 수술 당일까지 혈당을 조절해야 다리를 수술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타일러도 완강했다. 결국 나는 매 식전마다 환자와 싸우는 간호사가 되어버렸다.

보호자가 찾아왔다. 70년 평생을 고집대로 살았던 할머니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나를 원망했다. 간호사라는 직위 따위는 보호자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새파랗게 젊은 애가 나이 지긋한 노인에게 대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다. 아직도 사회는 '백의의 천사'라는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었고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 인력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 경력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아픈 이들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역량으로 헌신하는 노력을 들여다보지 않는 현실이 그저 한탄스럽기만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았다. 좋은 간호사의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간호사,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간호사일까? 자괴감이 들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됐다. 아직은 간호사들이 쏟는 노력과 희생에 비해 사회의 시선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지만,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는 우리들을 그저 외면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아주 조금은 변해있지 않을까?

며칠이 흘러 수술 당일이 되었다. 오후 1시 반 스케줄이었는데 아침 식전 혈당 수치가 524mg/dl였다. 내분비내과 의사가 아침부터 병동으로 달려왔고 병동은 비상이 걸렸다. Infusion pump를 두 개 달고 한 시간마다 혈당을 측정하면서 수술실 가기 직전까지 인슐린을 섞은 수액 용량을 증·감량하며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애를 썼다. 1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나는 할머니를 수술실로 보내고 난 후 녹초가 되어 시들해졌다. 담당의사는 수술을 끝내고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보냈다.

‘아, 며칠 동안은 해방이겠구나’ 마음 한구석의 짐을 털어낸 나는 회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입사 동기와 함께 바빠서 못 먹은 밥을 챙겨 먹기 위해 근처 밥집을 찾았다. 간호사의 마음은 같은 간호사가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웅얼거렸던 감정들을 풀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사실은 보호자보다 더 가까이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지만 간호사도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직업임을 요 며칠간 절실히 느끼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내일 또 다른 헌신과 봉사를 하리라 다짐을 하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틀 뒤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어 병동으로 다시 전실 온 할머니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지쳐 보였다. 덩달아 나도 눈물이 났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큰 수술 이후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친 듯 보이는 할머니를 간호하려 갈 때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간호학생 시절부터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배웠으면서, 그것도 스스로가 일하면서 매일 느끼고 있으면서, 왜 환자의 불안한 감정과 스트레스 상황을 제대로 지

지하고 격려하지 못했을까... 신규간호사 타이틀을 벗어난 지 3년이 지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
기만 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때는 '보호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간
호사의 고충을 마냥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 당시 상호신뢰 관계 형성이 안 된 서로에게는 말 한마
디 한마디가 상처였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아직 거동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수술 상처도 좋아지고 기력이 회복되어 경
과가 좋은 상태이며 이제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긴다. 입원 당시부터 옆에서
간병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간병인 여사님도 할머니의 모진 성격에 지쳐 언제나 한탄하기 일쑤였
는데, 요즘은 할머니와 쿵-짝이 잘 맞는다. 보호자도 오가며 수고하라고 말을 건네는 것을 보면 예전
과는 달리 조금은 간호사의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나는 이번 기회에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됐다. 아직은 간
호사들이 쏟는 노력과 희생에 비해 사회의 시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
고 스스로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는 우리들을 그저 외면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아주 조금은 변해있지 않을까?

지칠 때마다 노트 한켠에 적어놓고 가끔씩 읽어보는 구절이 있다.

모든 것에 인내심을 가지라.

특히 나 자신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라.

스스로의 불완전함에 용기를 잃지 말고,

곧바로 개선하기 시작하라.

매일 하나씩 새롭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어느새 더 강하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오늘도 병원으
로 발걸음을 향한다.

어느 3년차 간호사의 Cheer Up

남예슬 / 대우병원 간호사

나는 대우병원 중환자실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왔다. 열악한 대한민국의 중환자 간호 조건 속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
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상태가 안 좋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쾌유해 무사히 중환자실을
퇴실하게 되는 것을 볼 때인 것 같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봄날 밤이었다. 술 한잔하기 좋은 날씨여서 그런지 응급실에는 한껏 취해 오시
는 분들이 많았다. 그 와중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할 환자가 있다는 전화가 왔다.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머리에 길이 10cm 정도의 넘어
져서인지, 둔기로 맞아서 생긴 것인지 모를 상처가 있어 출혈이 심해 응급실로 경찰이 데려왔다고 했
다. 간단한 신원확인만 된 상태였고,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했더니 소량의 경막하 출혈 소견이 있어 집
중관찰이 필요한 환자라고 하였다. 그렇게 인계를 받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새벽 1시쯤 이동식 침
대에 눕혀진 상태로 그 환자가 입원하였다. 환자는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술에 취해 묻는 말
에 횡설수설 대답하여 제대로 과거력을 청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보호자 연락처도 알아낼 수 없어,
경찰로부터 일단 회사 상사 번호를 알아내었다. 동공 반사는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지 운동 정도
는 grade 4~5 정도 측정되어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전화로 담당 주치의에 보고하니, 일단 고삼투성
이노제를 투여하면서 지켜보고 아침 6시에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재촬영하자는 처방을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4시쯤 강한 자극을 주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동공 반사가 완전히 비대칭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왼쪽 상하지 운동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급히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했다. 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기억이 거의 없거나,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가게 되더라도, 환자에게 감사 인사를 듣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환자와 있었던 일들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었고, 간호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치위는 아침 6시에 촬영하기로 한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최대한 빨리 촬영하도록 하고,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니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일단 회사 상사에 연락을 했고 뇌 컴퓨터단층촬영도 진행하였다.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처음 응급실에서 촬영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경막하출혈이 뇌 오른쪽 반구의 80%를 집어삼켜 중앙선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주치의와 회사 상사가 도착하였고, 담당 주치는 일단 회사 상사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회사 상사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우리는 구두로 수술 동의를 받았다. 그렇게 환자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나고 곧 환자가 나올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보호자도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였다. 환자의 고향이 거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원래 고향은 경기도 평택이고, 환자 홀로 거제에 내려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새벽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온 부모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흰 붕대가 감긴 머리에 붉은 피가 고인 주머니를 달고, 기관 삽관 상태로 ambu-bagging 하며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주치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라는 처방을 주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CT 영상을 보여주며 아들이 어떤 상태로 응급실에 왔고, 어떤 변화가 생겨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다는 말에 부모는 조금 안도하는 듯했다. 곧이어 나는 중환자실 면회시간과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했고, 면회를 하게 해주었다. 면회 후 환자의 아버지는 평택에 직장이 있어 돌아갔고, 어머니는 숙소를 얻어 거제에 머무르기로 했다. 어머니는 하루 3회 있는 면회 때마다 면회를 오며 아들에게 매우 지극정성이었다. 우리

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실 할 수 있길 바랐다.

우리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환자에게 전해졌는지, 환자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호전되어 갔다. 의식이 돌아오고, 인공호흡기 전원을 끄고, 기관 삽관도 제거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아프다’는 표현도 가능하게 되었다. 뇌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출혈은 거의 사라졌고, 뇌 중앙선도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다. 우리가 부축하면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왼쪽 상하지의 움직임이 좋아져, 대변을 기저귀가 아닌 이동식 변기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식사도 혼자 할 수 있었다. 아들이 하루 하루 좋아지는 모습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고, 우리도 너무 기뻐했다. 드디어 환자의 일반병실 전실 처방이 났을 때,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일반병실로 갈 수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었던 건 모두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일반병실로 가기 전 우리에게 한 말이다.

중환자실 퇴실 후에도 그 모자와 우리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중환자실 밖에서 가끔 병원 내를 산책하고 있는 모자와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간혹 아들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먹을 것을 사 들고 중환자실로 찾아와 간호사실에서 수다를 떨다 가곤 했다. 완전히 병원을 퇴원하기 전에도 중환자실로 찾아와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갔다. “선생님들 저 이제 완전히 퇴원해요. 퇴원하면 고향인 평택으로 돌아가 쉬면서 재활하려고요. 재활이 끝나면 다시 거제로 돌아와 회사에 복귀할 거예요. 정말 고맙어요. 잘 지내세요!” 우리는 그 환자의 미래에 응원을 보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우리는 그 환자를 거의 잊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오전 바쁜 시간이 지나고 스테이션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중환자실 초인종이 울렸다. ‘면회시간도 아닌데 누구지?’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환자였다. 환하게 웃으며, 손에는 음료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너무 반가웠다. “사실 어제 거제에 내려와서 여기 들리려 했는데, 처리할 일이 많아서 오지 못했어요.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그는 한참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다.

사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기억이 거의 없거나,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가게 되더라도, 환자에게 감사 인사를 듣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환자와 있었던 일들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었고, 간호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임상에 있으면서 회의감이 들고 힘이 들 때, 이 일을 생각하며 Cheer Up 해서 환자에게 간호할 것이다.

현장의 소리③

겨울 가고 봄이 오듯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박용석 / 국립부곡병원 간호사

저는 올해로 불혹이 된 남자간호사입니다. 나이가 많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연차가 10년을 훨씬 넘겼거나 여기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로 5년차 간호사입니다.

30대 초반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늦게 간호대학에 들어가 36세에 졸업하고 대학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정신과 병원으로 전향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한지도 올해로 벌써 3년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늦게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진로를 바꾼 것에 대해, 간호사가 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는 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병동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가끔은 환자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그보다 즐겁게 일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도 보람되고 좋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 복지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2016년에 국립부곡병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급성기 병동으로 발령받아 급성기 정신질환자 분들을 간호해 오다가 작년 5월부터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부서로 옮겨와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2차진단, 입원적합성심사, 민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포항 지진, 밀양 병원 화재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에도 대상자 재난심리 초기 평가, 정신건강전문직과의 연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5월부터 시행중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간사로서, 새로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억울하게 또는 불법으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주관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병동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이지만 정신과 환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을 아직 멈추지 않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과에서 일하다 보니 다시 병동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몇 년 뒤에는 병동으로 다시 돌아가 간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여 또는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 투약과 치료를 유지할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투약을 거부하고 가족분들도 돌보기 힘들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분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치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인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또 정신과는 병동 환자 간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 유지, 증상 확인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국립병원으로 이직하였고 정신과 환자분들이 체계적인 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국립부곡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비록 정신질환으로 사회의 편견과 마주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와 훈련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및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다니고 간호학과에 편입해 다른 분들보다 늦게 간호사가 됐지만, 간호사란 직업은 누구보다도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이 많은 만큼 시련도 많았고 그만큼 마음도 많이 자랐습니다. 환자분들도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자랄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전을 아직 멈추지 않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4년차 간호사의 첫 경험

안지영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다. 첫 걸음, 첫 등교, 첫 출근. 인생을 살며 아무리 많은 일을 겪더라도 '처음' 겪었던 일들은 마치 오늘 있었던 일인 듯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다.

나 역시 그렇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신규 간호사로 시작하여 현재 4년차 간호사가 된 지금까지의 첫 정맥주사 성공 환자, 첫 입원 초기평가 작성을 해본 환자는 아직까지도 그 상황과 그때 당시의 환자 표정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앞으로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때가 되어서도 잊지 못할 순간들이 될 것 같다. 소소한 첫 case의 환자들도 모두 기억에 남지만 특히나 기억에 남는 첫 경험은 아무래도 응급상황들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는 두 가지 아주 기억에 남는 응급 상황이 있다.

생애 첫 CPR의 순간

많은 처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처음의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생애 첫 CPR이다. 흉부외과 환자의 경우 early ambulation이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치료이다. 그래서 심장 수술이든 폐 수술이든 중환자실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빠르면 수술 후 다음날 늦으면 3~4일 이내에 병동으로 올라와 ambulation을 한다. 그래서 chest tube 및 IV route를 주렁주렁 달고 병동을 걸어 다니는 환자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들이 어쩌면 나에게 징크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으며 나에게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험이 되었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성장할 준비를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병동 내 중환자실에 있던 5명의 환자 중 유독 나를 예뻐해 주시고 설명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주시던 A 환자분이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데이근무로 출근한 날이었다. 데이근무의 중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모닝케어를 하며 x-ray를 찍고 병동으로 돌아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A 환자분을 만나 안색을 살피고 어디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A 환자분에게서 특별한 증상은 관찰할 수 없었고 라운딩할 때 보지는 말을 남기고 모닝케어를 마무리하였다. 다른 환자분들도 상태를 살피기 위해 라운딩을 시작하였다. 늘 하던 대로 환자들 상태를 살피기 위해 정규 라운딩을 시작하여 중환자 병실부터 들어가 활력징후 측정부터 하기 시작하였다. 시작한 지 5분 정도 되었을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나는 병실 밖을 나가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리는 근원으로 향했다. 왜 항상 불길한 느낌은 틀린 적이 없는 것일까. 병동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ambulation 후 휴게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는 것을 불과 20분 전에 보고 라운딩에 나섰었는데 그 환자가 휴게실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스트레처카로 옮겨지고 있었다. 순간 드는 생각은 '아... 생애 첫 CPR이구나.' 였다. 사고 회로는 정지됐지만 내 몸은 본능적으로 환자를 병동 내 처치실로 옮기고 있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몸이 움직이는 대로 CPR을 했고 중환자실로 환자를 옮긴 후에도 전산 정리 및 처치실 정리를 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나는 4년차가 되어서 첫 CPR을 경험했다.

그날의 일을 겪기 전까지 CPR 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많이 시뮬레이션해 보고 실제로 연습도 해봤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신규의 상태가 아닌 4년차 간호사가

되어 CPR을 경험하였으나 신규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이라 인상 깊었고 처음이라 미숙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첫 CPR인 것 같다.

나에게 징크스를 만들어 준 첫 Bleeding 환자

미신일지 모르나 징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 치는 날 머리를 감으면 시험을 망친다든지 왼발로 공을 차면 골이 안 들어간다든지 하는 등의 징크스 말이다. 여태 살아오면서 징크스를 만들지 않았고 징크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룬다는 중압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인 것이었을까. 나에게도 징크스가 생겼다.

나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의 취향을 거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징크스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다. 바로 병원 출근 시 빨간색 옷이나 신발을 신거나 빨간색으로 화장을 할 경우 그날은 나의 담당 환자 중 active bleeding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옷지 못할 징크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첫 환자가 있다.

때는 나이트근무였다. 밤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새벽 5시가 되어 나이트 정규 라운딩을 위해 그날도 병동 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3명의 환자 중 2명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지막 1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환자인 B 환자에게 갔다. 환자는 울렁거린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검붉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혈압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맥박은 치솟기 시작했다. Bleeding이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즉시 담당 교수님께 연락을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대처한 덕에 환자는 출혈이 멎었고 하루 이틀 정도 경과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동을 가게 되었다. 환자는 안정을 되찾고 중환자실에 갔지만 나는 기록을 하고 병동을 정리하는 등의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다.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데이번에게 인계를 준 후 환자가 토해낸 검붉은 피를 옆에 두고 마지막 기록을 정리하였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게 된 나는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환자가 토해낸 검붉은 피와 같은 색의 빨간 니트였다.

그날 이후 어쩌면 우연일지 모르지만 내가 붉은 옷을 입거나 붉은색 계열의 화장품을 사용하여 화장을 하고 가는 날은 어김없이 나의 환자에게서 active bleeding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일을 4번 정도 겪은 후 나는 출근할 때만큼은 절대로 붉은색의 옷이든 화장품이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간호사로 시작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4년차 간호사가 되기까지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은 첫 경험들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많은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들이 어쩌면 나에게 징크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으며 나에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험이 되었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성장할 준비를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이다.

과연 미래의 나는 어떤 첫 경험들을 하고 어떤 간호사가 되어있을까?

현장의 소리⑤

‘꽃길’ 아닌 ‘불꽃길’

황주영/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어린 시절, 몸이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났을 때마다 어떤 처치든 능하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도 어머니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 하는 생각에 간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에 진학을 했고, 간호사와는 다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마음속 한가운데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군대 전역 후 24살의 나이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 재수를 결정했으며 25살을 시작으로 '간호'라는 단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4년 동안 좋은 동생들과 친구들, 교수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멋진 간호사, 꽃길만 걸어가는 간호사를 꿈꾸며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정식으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발령을 받았고, 1순위로 적었던 수술방과의 인연을 뒤로한 채, 2순위로 적었던 중환자실에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학생 시절 평소 머릿속에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정말 똑똑하고, 환자에게 즉각적인 처치를 내릴 수 있는, 멋진 간호사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배정을 받게 되었을 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중환자실에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해보자!' 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습할 때 입던 과란 옷을 입고, 수간호사 선생님과 프리셉터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으니 그제서야 중환자실 간호사가 된 것이 실감이 되었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시절 개인적으로 머릿속 멀티태스킹이 잘된다고 자부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평소 생각했던 저의 멀티태스킹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하나 이

마음속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평생직업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다른 신규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꽃길'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그 길은 '불꽃길'이었고, 그 길이 아름답게 타오를지, 그저 화재현장의 불꽃같이 끔찍하게 타오를지는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멋지게 타오르는 '불꽃길'로 만들기 위해 매일 매일을 노력하는 멋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상은 생각할 수 없는 신규간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대시절 이등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꽃길을 꿈꿔왔지만,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불꽃길'이었습니다.

꼭 되던 일도 프리셉터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을 하여 되지 않았고, 실수를 한 번 하면 그 실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과 달리 저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은 통합중환자실이어서 환자를 비슷한 과를 모아 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과, 외과, 신경과, 호흡기 등등 모든 과를 모아 놓은 곳이 저희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파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 환자를 케어 할 때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매우 달랐습니다. 또한, 병원 특성상 인턴 선생님이 없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타병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환자 상태에 대한 노티는 인턴 선생님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 병동은 주치의 선생님이 교수님께 곧장 노티하는 형식이라 노티조차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도 힘들고, 환자 상태도 어렵고, 노티도 복잡한 불꽃 병동이었습니다.

입사 시절 80kg으로 시작했지만, 단 5개월 만에 스트레스 때문인지, 밥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어느새 70kg으로 체중도 줄어있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으면서, 걱정을 하였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걱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원으로 속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움과 환자들이 호전되어 전동 갈 때의 희열과 동기들, 선배간호사 선생님들

과의 원만한 관계로 인한 안정감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함으로 지내왔습니다.

혹여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나의 큰 등불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같은 해에 입사한 17사번 동기들이었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동기들은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같은 실수를 하는 것에 실소를 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고, 힘들었던 상황을 서로 얘기하며, 위로도 받으며,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전인적인 간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스터디 그룹을 추진하여 동기들과 조금 더 나아가는, 조금 더 성장해가는 간호사가 되자 결심하며 공부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서로 헛갈렸거나 궁금했던 점을 공유하면서 찾아보면서 저희는 투자했던 시간만큼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초기에 우리 병원이 통합중환자실이라 간호하는 것이 포괄적이라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하는 것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열정, 열망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내과, 외과 등 다양한 간호지식을 쌓게 해준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원의 중환자실보다 참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타 병원처럼 인턴선생님께 노티하지 않고 교수님께 직접 노티를 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전인간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18사번이라는 새파란 새싹 간호사 선생님들이 입사했습니다.

고작 2년차 간호사라는 작은 타이틀이었지만, 신생병원 특성상 17사번 동기 선생님들이 18사번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함께 일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인분의 몫을 하게 되었는데, 일 년 아래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려니, 그것 또한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혼나면서 일을 배웠지만, '개구리 울챙이 시절 기억 못 한다'는 말이 딱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쏟아져 나오는데, 18선생님들이 생각만큼 일을 못 해주니, 짜증도 나고, 화도 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18사번 선생님들의 뒤를 봐주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함께 일을 하며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18사번 선생님이 저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선배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간호사를 1년 정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중환자실 전담간호사에 대해 제안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다니는 전담간호사 선생님들과 달리,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 안에 상주하며, 중환자실의 전

체적인 상황과, 환자상태를 체크하며, 환자케어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께선 전담간호사는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며, 깊이가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며,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부터 똑똑한 간호사가 되길 희망하였던 저였기에,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제안을 감사히 받아드렸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로서, 중환자실 전체 분위기, 상태를 체크하며, 환자상태와 환자들이 어떤 케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지, 환자상태는 어떠한지 알아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지만, 처음 입사할 당시 느꼈던 절망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되고,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뻥뻥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고, 다시 원래 몸무게인 80kg 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평생직업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다른 신규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꽃길'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그 길은 '불꽃 길'이었고, 그 길이 아름답게 타오를지, 그저 화재현장의 불꽃같이 끔찍하게 타오를지는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멋지게 타오르는 '불꽃 길'로 만들기 위해 매일 매일을 노력하는 멋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남간호사회 파이팅!!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정신간호사의 이미지 변화

Social Stigma of Mental Illness Patients and Psychological Nurse Image Change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간호사, 신 은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전 후에 지각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 56명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 결과, 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관계와 역할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간호학 실습 전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실습 전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간호사들은 스스로 정신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사의 감성지능, 공감피로, 직무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및 재직의도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Compassion Fatigue, Job Stress, Clinical Competency, and Retention Intention

백은화·이외선·김미정·심봉희·전혜영·박혜원·김명자·김화영
/창원경상대학교병원·창신대학교·창원문성대학교

연구목적: 이 연구는 감성지능, 공감피로, 직무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및 재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와 관리 차원의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서술적 조사연구로 C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교육 기간 중에 있는 신규간호사, 중간관리자, 진료지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32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는 희망부서 배치 여부, 직무만족도, 간호직 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은 재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공감피로와 직무스트레스는 재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직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직무만족도($\beta=.45$)로 설명력은 34.6%였으며 임상수행능력($\beta=.16$), 직무스트레스($\beta=-.19$), 희망부서 배치 여부($\beta=-.11$)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중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직무스트레스, 희망부서 배치 여부이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2%이었다. 이에 간호관리자 뿐 아니라 경영진은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직무만족 요인을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지능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있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접목한 재직의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감성지능, 공감피로, 직무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재직의도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검진동선분석

A Traffic Line Analysis through Simulation Modeling in Health Promotion Center

하미경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동선을 분석하고, 최적의 건강검진 동선을 선정하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검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양산시 소재 P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성인 23명이다. 검진자의 전체 검진소요시간, 검사별 소요시간, 대기시간, 이동시간을 분단위로 직접 측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은 포스텍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IOS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21일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2013과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평균, t-test의 값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남성은 60.9%, 여성은 38.1%이었다. 전체 검진소요시간은 평균 265분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별 소요시간은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의 경우로 평균 44분이 소요되었다. 검사 전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검사는 채혈과 골밀도 검사로 평균 1분으로 나타났고, 검사 전 대기시간이 가장 긴 검사는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동시에 하는 경우로 평균 41분으로 나타났다. 검사실 간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분으로 나타났다. PIO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검진소요시간과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67, p>.001$). 실제 검진소요시간보다 시뮬레이션 검진소요시간이 평균 195분에서 149분으로 감소하였다. 실제 대기시간보다 시뮬레이션 대기시간은 평균 88분에서 38분으로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건강검진 동선분석은 실제 검진동선을 조금만 변경해도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실시한 검진동선을 실제에 적용해 본 후, 검진 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이 감소하는지 사후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및 재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nhancement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nd Job Intention of New Nurse

문은경 · 심봉희 · 정영란 · 김화영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
이외선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김미정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임상경력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로 실험군 15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29명이었다.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선행연구(이외선, 구미옥)를 바탕으로 수정되었으며 8주간, 총 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사전, 중재 직후, 중재 4주 후에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및 재직의도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시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χ^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제 1가설: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결과 감성지능($F=.03, p=.939$), 자기감성이해($F=.10, p=.319$), 타인감성이해($F=.07, p=.928$), 감성조절($F=.92, p=.345$), 감성활용($F=.41, p=.525$)에서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1은 기각되었다
- 2) 제 2 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F=1.20, p=.309$) 가설2는 기각되었다
- 3) 제 3 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F=.90, p=.411$) 가

설3은 기각되었다

- 4) 제 4 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재직의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F=.26, p=.716$)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신규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감성지능, 임상수행능력 및 재직의도를 증가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신규간호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적극 권장한다.

추후 연구를 위해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양한 임상경력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종합병원 근무자들의 잠복결핵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atent Tuberculosis of a General Hospital Worker

이미연, 이명신, 심정순, 성지희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종합병원의 근로자들의 LTBI 유병율을 조사하여 잠복결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잠복감염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종합병원 근로자 345명중 2017년 5.24-11.30까지 6개월간 잠복결핵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333명을 대상(TST 결과 양성 12명 제외)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종합병원 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 종합병원 근로자의 성별 잠복결핵 분류, 종합병원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잠복결핵의 유무를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31.5%, 여자 68.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9세는 25.6%로 나타났고 30-39세가 3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40-49세가 24%로 나타났다. 50-59세는 15.9%로 나타났다. 60-69세는 2.1%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근로자의 성별 잠복결핵을 분류해 보면, 남자는 전체 105명으로 양성 15.2% 음성이 84.8%로 나타났다. 여자는 전체 228명으로 양성 7.0% 음성이 93%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들의 잠복결핵 유병율은 9.6%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잠복결핵 유무를 보면, 20-29세는 잠복결핵 양성은 없으며, 음성만 100%로 나타났다. 30-39세는 양성 7.4%로 나타났다. 40-49세 양성 16.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50-59세는 양성 15.1%로 나타났다. 60-69세는 양성 42.8%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근로자의 부서에 따른 잠복결핵의 유무를 살펴보면 고 위험부서(내과외래, 내과병동, 내시경실,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와 기타 부서로 나누었다. 고 위험부서는 잠복결핵 양성 2.4% 음성은 22.2%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부서는 고 위험부서 보다는 기타부서 직원이 3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부서는 잠복결핵 양성 7.2% 음성이 68.16%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 잠복결핵은 전 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 위험부서(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내시경실, 내과외래, 내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2017년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45명중에서 IGRA 검사를 실시한 333명중에서 잠복결핵양성자는 32명으로 유병율은 9.6%이다. 타 병원에 비하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2016년 8월 4일부터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전 직원)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 실시 의무화에 따라 본 기관에서는 2016년에 결핵피부반응검사(TST), 2017년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검사를 실시하였다. 신규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와 치료 거부 등으로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잠복결핵 미 치료자에게 결핵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 관련 증상 발생 시 결핵 검사를 즉시 받도록 안내하고 정기적인 결핵증상 모니터링 및 결핵 검진을 철저히 실시하여야겠다.

경남간호 '핫 이슈'

2018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간호부)

주최 :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4일(화) 풀만엠베서더 창원 2층 빌라드룸

참석자 :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 총 83명

내용 : 임상간호사의 사직 및 이직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그룹토의 및 발표

주제 1. 신규간호사의 간호현장 적응방법 공유

주제 2. P.A (Physician Assistant)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I 신규간호사의 간호현장 적응방법 공유

문제점

1. 업무의 미숙함

- 프리셉터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여건의 병원인 경우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한 업무와 소통의 문제 발생
- 일부 간호사의 태움.
- 대학의 무리한 간호학과 개설과 증원으로 인한 적성과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입학 증가와 실습병원의 부족

2. 신규간호사 이직 및 사직률 증가 이유

- 대학교육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역량문제로 인한 심적인 부담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 (실수, 소통, 관계 등)
-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세대간 성향 및 가치관 등의 차이
- 대학의 실습교육과 병원현장의 차이
- 부모의 태도
- 타 병원 및 동료와의 심한 임금 격차
- 프리셉터 교육 시 프리셉터와의 비교 등으로 자존감 저하
- 3교대 근무의 어려움과 간호업무의 정확한 이해 부족

기관이나 대한간호협회의 차원의 개선점

1. 신규 간호사의 표준화된 교육 및 평가 기준 마련

2. 유연근무제 적용 - 힐링시간 제공, 여행 등

3. 직원 간의 문제 발생 시 조용한 해결 방안 선택 - 부서 이동 등

4. 과거와는 다른 신세대의 성향과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부서장들의 노력과 생각의 전환 필요

5. 표준화된 임금체계 마련 - 병원 및 지역 간의 임금격차 줄여야 함.

6. 대형 병원의 비정규직 기간의 폐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필요

7. 정부의 보건인력 증원은 엄중한 잣대로 이루어져야 함.

- 무조건적인 간호사의 증원은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유입 및 대학의 간호교실습교육의 문제 등으로 오히려 이직·사직율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대학에서의 개선점

1. 간호대학생의 야간근무 실습 필요

2. 취업 전 인턴십이나 근로봉사를 통한 사회생활 체험 기회 증가

3. 간호사로서 전문직관과 소명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필요

- 특강 :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3년차 선배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대학에서의 전문직관 교육과정 필요



주제 II P.A (Physician Assistant)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점

1.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수행 업무의 대부분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
2. 간호사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 초래
- 간호부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음.
3. 간호사가 P.A를 하는 이유
- 부족한 의사인력을 간호사로 대체 - 교대(3교대) 근무가 없음. - 병원의 정책적인 문제
4. 신규간호사의 P.A 업무수행의 어려움.
- 역량 부족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의료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음.
5. P.A로 인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간호사 인력이 P.A로 투입되고 있음.

※ 2018년 전국 1만 여명의 간호사가 P.A를 하고 있으며, 이 중 734명이 국립대병원에서 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대신하고 있음.

기관이나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개선점

1. 의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간호사가 하도록 방지 할 수는 없음.
- P.A 제도 합법화 또는 폐지 추진
- 의사 증원이 시급함.
-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P.A제도 관련 법안 마련 필요
2. P.A로 활동한 기간을 간호사 경력으로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함.
- 간호부에 소속 될 수 있도록 조치
3. 만약 법제화 된다면 무조건 발령을 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에 의해 P.A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
4. 신규간호사를 P.A로 발령 내지 않도록 병원의 노력이 필요함.
5.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주에서 면허를 주는 PA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교육 과정을 마련했음.

※ 위 내용은 2018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의 그룹토의 및 발표 시 개진된 의견입니다.



경남간호사회 동향

2018



2018년 본회 주요소식

제7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제7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3월 21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2층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및 내외빈 등 총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민건강 증진'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017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총회 수상자는 남해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정현주 팀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 거창 개명보건진료소 박형숙 진료소장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창녕 더케이 서더에이지 이옥희 간호부장이 경상남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2018~2019년도 임원선거 결과,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이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러닝메이트인 조순연 경상대학교병원 대의협력팀장이 제1부회장, 남정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제2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권영채 이사 등 12명의 이사와 김희자, 성명숙 감사를 선출했다.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민건강 증진'을 주제로 2월 21일~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되어 본회 이경옥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7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



터 사업보고에 이어 제8차 장기사업계획안 및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2018~2019년 임원선거 결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당선되었고, 러닝메이트인 곽윤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이 선출되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본회 및 분회) 실시



간호사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 교육제공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도자기 공예' 강좌 초급과정을 개설하여 상·하반기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올해는 5개 분회(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남해군, 합천군)에 지원금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바리스타, 비누공예, 청각관리사 과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제47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7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47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으로 5월25일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김성진 교육위원의 사회로 회원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국립부곡병원의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정신간호사의 이미지 변화'를 비롯하여 경상대학교병원 2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편, 창원경상대학교병원 2편, 총 6편의 논문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사례연구 1편을 발표하였으며 전원 참가상을 수상했다.

회원들에게 논문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한 특강은 본회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이 '간호현장의 연구문제 탐색과 도출'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학장으로 재직 중인 최소영 교육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간호사 워크숍 - 임원 및 회원 개최



본회와 각 분회 간의 활성화를 위한 '간호사 워크숍 - 임원 및 회원'을 주제로 본회와 각 분회의 임원 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함께 간호계의 최신정보 및 문제공유를 통하여 이해와 단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5월 12일(토) 임원 및 회원 56명이 참가하여 양산 스페이스나무에서 분회 지원금 지급 및 분회의 '어르신 행복잔치' 개최 논의와 올해 실시 예정 사업들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박형숙 회장의 올해 5월부터 개소한 '간호인력취업교육경남센터' 개소 현황 보고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독려와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명화상 추천 100만 서명운동' 홍보 및 독려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 컬러진단 '나도 이젠 말할 수 있다.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갤러리 관람 및 통도사 탐방을 통하여 단합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회인 양산시간호사회에서는 장소 선정 및 간식, 기념품(폼 클렌징)을 지원하였다.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간호대학·병원간호부)



2018년도 간호교육 질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간호부)를 7월 24일(화) 풀만앰배서더 창원 호텔 빌라드룸에서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서장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는 이상희 가야대학교 총장의 '고천원고지(高天原故地) 비(碑)의 유래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간호학과(대학)와 병원 간호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의 사직 및 이직방지로 인한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과 수급 불균형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규

간호사 간호현장 적응방법 공유 및 P.A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그룹토의 및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균형적인 인력관리와 신규간호사의 간호현장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스트레스 관리법과 의사소통 관련 내용 및 간호사 인력난 관련 내용을 건의하였다.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청소년 금연치료 관리 및 재흡연 방지전략’을 주제로 7월 26일~28일까지 양산 스페이스나무에서 2박 3일간 실시하였고, 경상남도 보건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원 이수하였다. 27일은 ‘학생 금연지도교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보수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제1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개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8월 22일(수) 풀만앰배서더 창원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식에는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정순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존슨앤존슨, 이븐플로, 필립스아벤트, 유한킴벌리 더블하트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먹이기 위한 여건 마련의 분위기 조성, 유아기 건강과 건강한 인격 형성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통하여 국가



의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다. 지난 7월 12일 개월별 3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회일 기준 생후 4~6개월(2018년 1월 23일 ~ 2018년 4월 22일)된 건강한 모유수유아 89명(4개월 29명, 5개월 30명, 6개월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의사검진, 발달검사, 모아애착 및 건강지수 등 심사를 거쳐 시상하였다. 시상은 경상남도지사상(5개월 장수영), 대한간호협회장상(4개월 이태린),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6개월 김리한) 각 1명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하고, 으뜸상 9명에게 상장과 상금 25만원, 보람상·행복상 등 66명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그리고 16명에게는 협찬사로부터 받은 이븐플로상, 존슨앤존슨상, 필립스아벤트, 유한킴벌리 더블하트 모유수유상을 수여하였다. 심사집계 동안에는 감성레크레이션 및 50명에게 행운상과 엄마사랑모유사랑 퀴즈상으로 상품을 지급하고 아기와 가족들이 함께하여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모유수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육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모유수유 홍보부스에는 리플렛을 비치하여 배포하였고, 그 외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만들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간호행정자 세미나 (순회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시

간호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와 예비관리자들에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간호행정자 세미나를 9월11일(목) 호텔인터내셔널 신관 5층 그랜드볼룸에서 총 119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다.



올해는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이해 - 간호사,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김수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CS실장의 스트레스 바로알기, 김세영 백석대학교 교수의 성격유형 찾기, 양지숙 이로운컨설팅 대표의 긍정적 사고 키우기, 안진희 마음안힐링상담센터 대표의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순서로 강의를 이어졌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 교육 주제로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건의하였다.

간호사 Cheer Up



경상남도간호사회는 2018년도 본회 회원등록 5년 이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당선자에 한하여 같이 동행하고 싶은 동료, 선·후배 회원 1명과 함께 참가하는 행사로 경상남도간호사회에 대한 의식제고와 간호역량강화교육 및 회원들의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10월 12일(금) 통영 RCE 세자트라숲에서 총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본회의 박형숙 경상남도간

호사회장, 조순연 제1부회장, 박옥명 이사, 김희자 감사, 성명숙 감사, 강둘순 통영시간호사회 회장이 함께하여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근 보건의로 이슈’에 대하여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특강 및 본회 활동 보고 후 공예체험과 통영국제음악당 관람과 요트투어를 통해 간호사들간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동기간과 선·후배가 이해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 개최



10월 18일(목) 풀만앰배서더 창원 호텔 2층 빌라드룸에서 개최한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은 경남도내 요양병원 간호부 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요양병원의 간호업무상 요구도가 높은 주제로 강의와 사례발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66명이 참석하여 ‘QI 활동 수행 및 사례발표’를 주제로 대한 노인요양병원협회교육센터 김은숙 이노솔루션 인증컨설턴트의 강의와 전진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과장과 황혜주 새롬재활요양병원 간호부장의 요양병원 2주기 인증 관련 자체평가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추후 교육프로그램으로 3주기 인증관련 교육, 병원규모별 다양한 사례발표 등이 건의되었다.

초청강연회 개최



12월 5일(수) 풀만엠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내빈, 임원, 증경회장, 분회장 및 총무, 간호부서장, 간호대학장(학과장), 회원, 간호대학생 등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이곤 유클래식 대표의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하여 잠시나마 클래식 선율 속에서 한해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보수교육 실시 분회 및 실시 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목) 개최하였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보수교육실시 결과보고 및 2019년 대한간호협회 교육실시 예정안에 대한 안내에 이어 보수교육 실시 후 기관별 평가 및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자의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실시의 어려움과 중앙회 교육국의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변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웃돕기사업



매년 각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김해시·창원시·하동군간호사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선정되었다. 본회 박형숙 회장을 비롯하여 이갑옥 창원시간호사회 회장, 김해시간호사회 회장 및 본회와 분회의 임원들이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과 함께 총 415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8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창원시간호사회 | 2008. 06. 24.

창신대학교-창원시간호사회 간 산학 발굴 협력 체결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이갑옥)는 임원 10명과 창신대학교 강정목 총장을 비롯하여 성재표 기획처장, 이상진 교육처장, 박용수 입학처장, 조영숙 간호대학원장, 제남주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4월 17일(화) 창신대학교 2층 본관에서 창원시간호사회와 창신대학교 간의 산학 발굴 협력(MOU)을 체결하였다.

창원시간호사회 회원, 청각관리사 자격 취득반 운영



창원시간호사회는 5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15시간 프로그램으로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청각관리사 자격 취득반을 개설하여 총 2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난청이나 이명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청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청각관리 자격 취득자가 부족하여 청각관리사

자격 취득반을 개설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간호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회원 한마음단합대회 '진해 드림로드 트래킹'



창원시간호사회는 11월 3일(토) 회원 150명(창원 72명, 마산 69명, 진해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간호사회 회원 한마음단합대회로 '진해 드림로드 트래킹'을 실시하며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에 풍호공원운동장을 출발하여 등산로를 따라 해병대체험장 심터와 천자암을 지나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점심식사 후 풍호공원운동장에 도착하여 오후 1시경 해산하였다.

진주시간호사회 | 2008. 07. 09.

진주시간호사회 총회와 특강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경선)는 6월 8일(금) 총회와 함께 특강을 마련하였다. 회원들의 총회 참석 후 '이미지 컬러진단'을 주제로 한 특강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과 피해야하는 색상을 진단하여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

진주시간호사회 봉사활동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현옥)는 9월 9일(일) 진주시에 서 주최하는 '좋은세상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에 임 원 및 회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진주시간호사회 보수교육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현옥)는 10월 17일(수), 18일(목) 양일간 경남지역 암센터 2층 대강당에서 '환자안전과 간호'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총 294명이 이수 하였다.

거제시간호사회 | 2008. 10. 10.

2018년도 거제시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신순아) 주관으로 7월 3일(화), 7 월 5일(목) 양일에 걸쳐 '환자안전과 간호'를 주제로 거 제대학교 강당에서 2018년도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 하였다. 거제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4명이 교육강사로 참여하였으며, 총 216명이 이수하였다.



거제시 간호봉사활동 실시



거제시간호사회 주관, (사)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로 10월13일(토), 거제 산달도 산전마을 경로당에서 제 10회 거제시간호사회 간호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지 역주민 7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크(혈압, 혈당체크) 및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물(구급함)을 지급 하였으며, 거제시간호사회 임원 및 회원 20명이 참여하 였다.

맛과 향에 도전하는 간호사 바리스타



거제시간호사회는 경상남도간호사회 간호역량개발 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6월 11일(월)부터 5주 동안 거제커피

교육학원에서 '맛과 향에 도전하는 바리스타' 강좌를 개 설하여 자기개발의 기회제공으로 2급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회원들간의 소속 감을 부여하였다. 회원 총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8년도 거제시간호사회 송년의 밤



거제시간호사회는 11월 20일(화), 옥포애드미럴호텔 연 회장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2018년도 간호사회 송년의 밤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선·후배들과 유관단체 회원들과의 화합 및 문화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 증경회장, 회원 140명이 참석하여 섹 스폰 연주와 에어로빅댄스팀 초청공연, 화합의 장 및 행 운권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통영시간호사회 | 2008. 10. 10.

간호역량강화 연수



통영시간호사회(회장 강둘순)는 7월20일(금) '웰다잉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한국웰다임협회 조원규 원 장님을 모시고 통영 세아트라스룸에서 간호역량강화 프

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통영시간호사회 회원 120 명이 참석하였다.

통영시간호사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통영시간호사회는 12월 7일(금) 스텐포드호텔 & 리조트 통영 오디세이그랜드 볼룸에서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8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강둘 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순연 경상남도간호사회 제1 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통영시간호사회 신임회장 으로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가 취임하였다.

창녕군간호사회 | 2008. 11. 12.

창녕군간호사회 제7회 총회 및 특강 개최



창녕군간호사회(회장 신은)는 5월 29일(화), 국립부곡병 원 1층 대회의실에서 '커피와 경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새콩커피 대표 진철호님의 커피에 대한 기초지식과 역 사와 경제에 얽혀진 소소한 커피이야기로 회원들의 인 문학적 소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018년도 제7회 정기총회는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과 회원

50명의 참여로 분회 안전심의회와 대한간호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2018년 하반기 봉사활동



창녕군간호사회는 9월 20일(목)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창녕군 계성면 소재 반야노블카운티 요양원에 계시는 스물여섯분의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신체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소통과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하동군간호사회 | 2008. 11. 12.

하동군 어르신 행복잔치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경상남도과 경상남도 간호사회 지원사업으로 11월 10일(토)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하였다. 하동군 내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을 모시고 관내 댄스동아리 가수 초청, 부채춤, 노래자랑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은 잔치 한마당이 되었다.

고성군간호사회 | 2008. 11. 20.

고성군청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



고성군간호사회(회장 강미숙)가 2월 28일(수)과 7월 30일(월) 고성군청 드림스타트 아동 35명에게 정서행동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사천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명탐정 코난”, “신비 아파트” 영화관람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였다.

고성군간호사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고성군간호사회는 12월에 고성군 거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20명에게 사랑나눔 상품권을 지원하였다.

김해시간호사회 | 2009. 04. 07.

제10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강선희)는 제10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김해시문화체육관에서 4월 25일(수) 개최하였다. ‘행복한간호사, 건강한 사회 만든다’라는 주



제로 개최된 한마음체육대회는 총 300여 명이 참여하여 4개팀으로 나누어 단체게임과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업무에 지친 회원들이 모처럼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단합된 모습과 회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상남도 간호사회 박형숙회장, 박유동 김해부시장, 다수의 시의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적극 동참하여 간호사회 제10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우리는 바리스타~



김해시간호사회는 간호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김해 YMCA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5월 28일(금)~7월 11일(수)까지 제5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커피학개론부터 시작하여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카페메뉴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여유와 멋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리스타 교육은 회원 31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해시간호사회



김해시간호사회는 건강증진대축제(10월 12일~13일)와 김해분청도자기축제(10월 26일~11월 4일) 의료지원에 참여하였다. 건강증진대축제는 김해시보건소에서 주최하는 건강을 주테마로 분야별 30여개의 건강증진 실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김해시간호사회도 간호활동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분청도자기 축제에는 10일 동안 회원들이 소속된 간호대학 및 병원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성장하는 김해시간호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의 감성을 천사의 가슴에 더하다!!



김해시간호사회는 11월13일(화)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예술의 감성을 향기로 전하다’라는 주제로 『향기의 미술관』 저자를 모시고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제작한 향수를 시향하며 머리모만 이해했던 미술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하여 렘브란트의 자화상,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나무, 르노아르,

클림트 키스 등 다수의 명화를 감상하고 명화에 얽힌 이야기와 향수를 시향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간호사회 | 2009. 05. 28.

양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장우연 회장 선출



경상남도 양산시간호사회(회장 장우연)가 4월 12일(목) 양산부산대병원 4층 모압홀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기총회에는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현민 양산시 보건소장, 강인순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장 등 지역단체장과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금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장우연 회장은 간호사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위해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산 유채꽃 향연 참가, 봉사활동 실시



양산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 20일(금), '2018 양산 유채꽃 향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행사장 인근 환경미화를 실시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 초청강연회 개최



양산시간호사회는 5월 31일(목) '중국의료와 세계화'를 주제로 2018년도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역량증진과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산시간호사회 소속회원 72명이 참석했다. 남덕현(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오늘날 중국의 사회상황, 한중교류 분위기, 중국의 의료현황과 시장, 한국방문 중국 요우커 등 중국 의료와 세계화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장우연 회장은 "회원들이 최근 의료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강의료를 지원했다.

사천시간호사회 | 2009. 12. 05.

나이팅게일 봉사단 활동

사천시간호사회(회장 김복선)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상담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나이팅게일 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세차례(6월 30일,



7월 14일, 11월 10일) 사남면 가천마을회관과 소곡보건진료소, 통양보건진료소에서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웃음 및 스트레스 관리,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우리민요 및 전통가요, 트롯트, 시낭송 등 문화교실), 혈압, 당뇨측정을 통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사천시보건소,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사천중앙병원, 삼천포한마음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건양요양원 등이며 사천시보건소에서 기념품을 후원하였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잔치



사천시간호사회 주관, 경상남도·경상남도간호사회 주최로 9월 8일(토), 삼천포노인대학(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70분을 모시고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내 어르신들과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문화공유를 통해 고독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의 격려사 및 건강교육과 천덕찬 노인대학 학장, 김수

진 선구동장의 축사에 이어 건강댄스(황미영 삼한노인대학 교수), 판소리, 민요한마당, 사물놀이, 민요춤(이윤옥 민요단 외 사물놀이 팀) 등의 공연과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다과를 제공하였다. 참여기관은 사천시보건소,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사천중앙병원, 삼천포한마음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건양요양원이며 임원 및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거창군간호사회 | 2010. 06. 18.

거창 사과마라톤 봉사



거창군간호사회(회장 백진영)는 9월 9일(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하는 거창 사과마라톤 대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스프레이,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날 거창군간호사회 임원 및 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학생 24명이 참여하였다.

회원 가족 단합대회



거창군간호사회는 4월 21일(토) 거창중학교 체육관에

서 회원 및 가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과 상품, 다과를 준비하여 서로를 잘 알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점심은 수육과 비빔밥이 제공되었다.

남해군간호사회 | 2013. 12. 20.

핸드드립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남해군간호사회(회장 정영들)는 2018년도 분회 '회원역량개발사업'에 선정되어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핸드드립 바리스타과정을 이수하였다. 등록된 20명 중 19명이 핸드드립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커피이론,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별 원두로 핸드드립 커피 추출 및 다양한 추출기구 실습, 카페메뉴를 만들어 보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불우이웃돕기



남해군간호사회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변에 소외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운 지역내 두 가정

을 방문하여 간호사회의 체온과 함께 작은 정성을 전달하였다.

합천군간호사회 | 2015. 05. 26.

합천군간호사회 사랑나눔 바자회



합천군간호사회(회장 이미경)는 회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경상남도간호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역량개발사업 '비누공예 강좌'를 실시하였다. 수강기간 동안 회원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10월 3일(화), 합천황후시장 왕후카페에서 판매하여 수익금 총 200만 원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밀양시간호사회 | 2016. 03. 19.

제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4월21일(토) JK웨딩컨벤션센터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을 비롯한 주요인사 및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관내 간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 및 제2대 회장 이·취

임식을 개최하였다. 2년간 초대회장으로 활동한 장미희 회장(감염병관리 담당)을 이어 이명순 차월보건진료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밀양시간호사회 회원 친목도모



밀양시간호사회는 9월 15일(토), 밀양 한천박물관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양갱 만들기 체험 및 식사로 진행하였으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간호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밀양시간호사회 초청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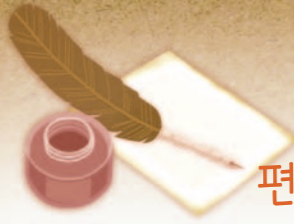
밀양시간호사회는 11월 10일(토), 밀양 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회원 70여 명 참석하여 여민돌봄연구소장 김미진 강사를 모시고 '나를 편안하게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였다. 연말을 맞이하여 회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함안군간호사회 | 2017. 03. 27.

함안군간호사회 가을나들이
결속 강화를 위한 회원 단합대회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홍은주)는 11월 10일(토)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시간을 갖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을나들이 행사는 함안군 산인면 소재 입곡군립공원에서 무빙보트 체험, 둘레길 걷기, 저녁식사 등을 회원 상호간의 결속 강화를 다졌다. 함안군간호사회 홍은주 회장은 평소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섬김을 잠시 접어두고 환자를 돌보기 이전에 회원님들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된다"며 회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후 재충전으로 간호사회의 전문성과 열정을 더해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하자며 다짐했다.



편집자 레터



경남 곳곳의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 실어 드리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향후 회원님들이 원하는 코너 등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보와 흥미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이종임 위원장>

중단되었다가 재발행된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지가 어느새 4권째(통상 24권)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우리 회원들의 숨은 숨씨들에 갈급한 마음이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경남을 외쳐봅니다.<김영란 위원>

그간 다듬어 온 여러 권의 『경남간호』와는 또 다른 마지막 다듬는 느낌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2019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까 봅니다. 다음 호의 『경남간호』 또한 다양한 삶을 돌보는 경남 간호사들의 일상이 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조망되어 글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김은희 위원>

『경남간호』 제24호의 발간을 앞두고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미약하나마 편집위원으로 동참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경남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은 작품들과 소식들로 하여금 바쁜 삶 속에 작은 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박옥명 위원>

곳곳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노력과 열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간호』 회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경상남도간호사회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함을 전하면서 우리 홍보위원회 이사님들 책 발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박춘희 위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곳에서 간호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윤미자 팀장님을 취재하면서 28년간의 그 흔적들은 간호계의 등불이 되어 미래의 후배들에게 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숙희 위원>

어느 현장에서든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회원님들과 간호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경남간호』를 통하여 잡시의 여유와 사색, 소통의 기회가 되고, 더욱더 간호의 길에 정진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황진희 위원>



경상남도간호사회 산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개소

병원홍보, 구인공고, 취업연계를 원스톱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인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신규·경력간호사의 이직·사직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8번째로 경상남도간호사회 산하에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 이경옥, 교육팀장 남경화, 사무담당 정현지)

의료기관 혜택

- 1년 이상 경력단절 간호사 채용 시 현장 적응을 위한 **훈련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입사 후 15일 이내 센터로 교육 신청 필수** (현장실무 훈련지원 참가의뢰서 제출)
- 대상 기관 조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강사 표준화교육 이수병원, 간호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이수병원, 2019년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강사 표준화교육 이수 예정 병원 (단, 상급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제외)

상시 실기교육 (교육비 전액지원)

- 간호인력의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육(핵심 기본간호술기)으로 진행
- 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간호사 및 의료기관 (단, 상 종합병원급,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제외)

보수교육 인정

-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24시간), 간호관리자 역량강화교육(8시간), 강사 표준화교육(8시간)



신청문의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경남센터 055 281 5522